

하루를 빌려 사는 청년

59초 숏폼 영화

2025-1 **AJOU**
SOFTCON

팀 명 59.97fps

팀 원 임서현, 임주현

지도교수 고옥

멘 토 홍종혁

개발동기 및 목적

‘하루를 빌려 사는 청년’은 현실적인 청년 문제와 지역 정책 간의 간극을 시청자에게 감정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기획된 59초 숏폼 영화입니다.

저희는 평소 사회문제와 다큐멘터리, 단편영화 콘텐츠에 꾸준한 관심을 가져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영상이라는 창작 방식을 통해 청년 주거 문제를 조명하고자 했습니다.

용인시의 청년정책 공모전을 계기로, ‘주거정책’이라는 다소 무거운 주제를 청년의 일상과 결합하여 보다 직관적이고 쉽게 전달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보자는 의도로 본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정책이 실제로 누군가의 삶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하여, 추상적인 정책 내용을 감정적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서사로 구현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개발내용

영화는 ‘같은 공간, 다른 삶’을 사는 두 명의 청년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청년 1은 안정된 주거 환경에서 일상을 보내고 있



으며, 청년 2는 마치 ‘하루를 빌려 사는 사람’처럼 몰래 외출하고, 조심스레 생활하는 불안정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러한 설정은 ‘자기 집이 없는 청년의 주거불안’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관객에게 보이지 않는 긴장감을 전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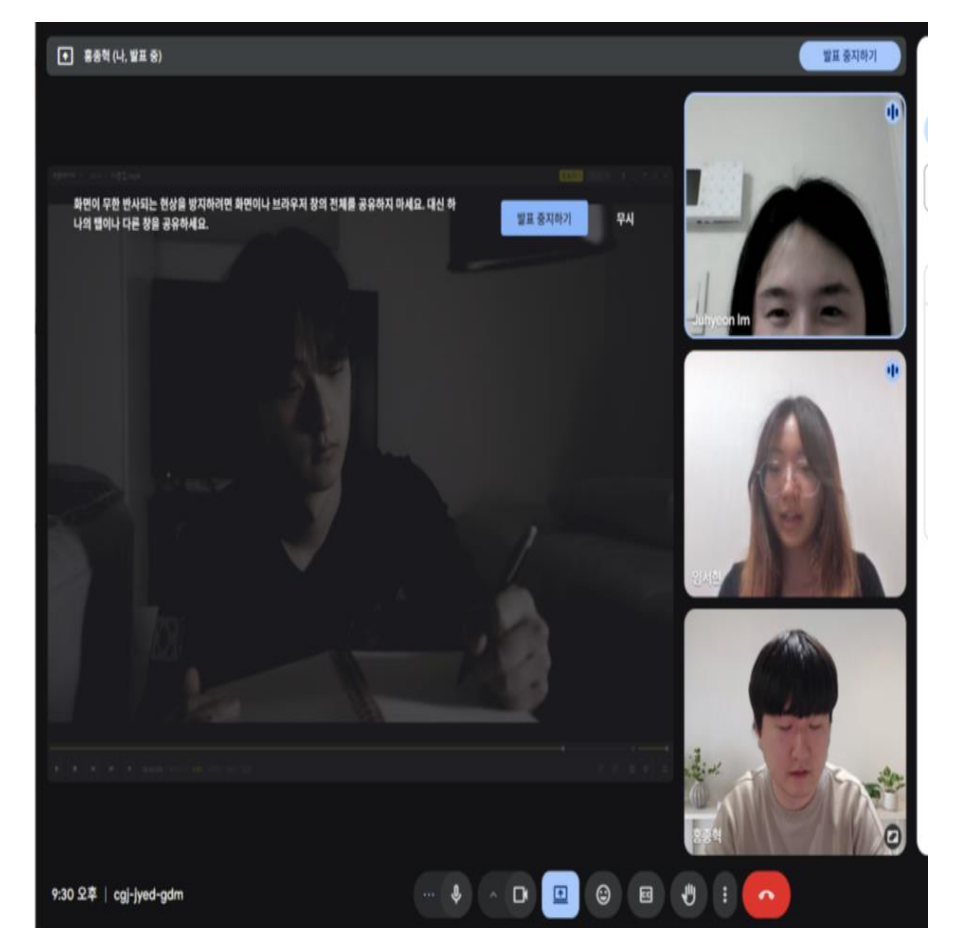
마지막에는 두 사람이 마주하게 되고, 청년 1은 용인시의 ‘청년 생애 첫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정책’을 통해 주거 안정성을 확보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이 반전을 통해 정책이 청년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직관적으로 전달합니다.

짧은 시간 안에 몰입감 있는 스토리텔링을 구현하기 위해, 시나리오 수정과 리허설, 스토리보드 설계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주요기술

- DSLR 카메라를 활용한 시네마틱 숏폼 영상 촬영
- Adobe Premiere Pro를 통한 영상 편집 및 색보정
- ChatGPT 기반 현실 반영 시나리오 작성 보조
- 스토리보드 및 씬 구분표를 활용한 체계적인 촬영 계획
- 짧은 시간 안에 몰입감을 높이는 감정 중심 연출 기법



결과 및 분석

영화는 59초라는 짧은 길이임에도 불구하고 시청자들로 부터 높은 몰입도와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SNS 및 공모전 평가에서 “짧지만 강렬하다”, “실제 내 이야기 같다” 는 반응이 주를 이루었고, 영상 말미에 등장하는 정책 정보는 자연스럽게 주제의식과 연결되면서 홍보 효과도 높였습니다.

또한,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현실 속 정책 체감의 ‘전후’를 극적으로 비교하여, 정책 수요자 입장에서 느낄 수 있는 변화를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과정은 단지 영화 제작을 넘어, 정책의 콘텐츠화 가능성을 실험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본 숏폼 영화는 용인시 청년정책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홍보 콘텐츠로서 활용 가치가 높습니다. 실제 수혜자의 삶을 반영한 서사 구조를 통해 정책의 체감 효과를 간접적으로 전달하며, 공공기관이 청년과 소통하는 창구로도 적합합니다. 또한 SNS, 유튜브 숏츠, 틱톡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확산 가능성이 높아 정책 인지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교육용 사회문제 콘텐츠 사례로도 활용되며, 타 지역 청년정책이나 다양한 청년 문제로 확장 제작이 가능합니다.



오픈소스 URL

<https://www.instagram.com/reel/DKMtKMjhVUW/?igsh=OGcyZzV2b3k5amg4>

